

---

## 아프리카에서 다국적기업의 윤리경영

김재준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

## Ethical Issues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Africa: host country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Jai-June Kim<sup>a</sup>

<sup>a</sup>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ookmin University

Received 24 April 2019, Revised 25 June 2019, Accepted 30 June 2019

---

### Abstract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ethical issu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in Africa. First, we find that the transparency and institutions of a host country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number of ethical violations of the MNCs. Second, this covers the effects of industry characteristics on each category of ethical issues such as the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Based on the database of "Ethical Consumer", we show that the Auto, Chemical, Finance,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are more likely to violate human rights issues, and that Mining, Oil, Cosmetics, and Chemical industries are more likely to pollute the environments. Further, the country of origin does matter: the US and Asian companies a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with the business ethics violations than are their European counterparts.

---

**Keywords:** Africa, Business ethics, Human rights, MNC

**JEL Classifications:** L2, M2

---

\* I gratefully acknowledge the financial support from Kookmin University in 2018. I am indebted to anonymous reviewers for providing helpful comments.

<sup>a</sup> First Author, E-mail: [jjkim@kookmin.ac.kr](mailto:jjkim@kookmin.ac.kr)

© 2019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I. 서론

아프리카의 식민지화는 전 대륙에 걸쳐 19세기, 20세기 전반부에 걸쳐 진행되었다. 유럽국가들이 근대적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할 동안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체되어 있거나 더디게 발전했던 것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과 같았다.

“유럽이 아프리카를 착취했는가?” 식민주의가 적어도 본국인, 유럽에게는 이익이 되는 시스템이었지만 식민주의를 통해 유럽이 아프리카에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견이 언급되면서, 식민주의를 하나의 대차대조표로 완성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관념을 넘어 다른 생각들이 또한 존재한다. 윤리적 소비자주의(ethical consumerism)는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구매한다는 뜻이다. 최근 몇 년간 생산품에 “어린이 노동자 아님(no child labor)”, “노동 착취 없었음”과 같은 표시를 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윤리적인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한 경험적 증거가 아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윤리의 위치에 관한 논의로, Shleifer(2004)의 예를 들 수 있다. “만약 공공의 의견이 정말로 어린이 노동자를 반대한다면, 기업은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어린이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규정한 바 있다.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는 소비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 노동자에게 충격을 주고 글로벌한 경제환경에서 직접피해를 보지 않은 다른 지역의 소비자에게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이슈를 제기한다.

CSR은 주로 기업의 이미지 개선효과의 차원에서 분석되었으나, Lee and Byun(2016)에 의하면 이제는 기업 고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평판(reputation)에 민감한 다국적기업들은 더욱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논란을 의식하고 있는 코카콜라는 하이브리드카의 채택, 재활용되는

병, 아프리카에서의 현지 소기업 지원과 현지 고용 확대 등에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자제하여 무분별한 마케팅을 자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20년간 대중매체 및 NGO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소비자가 상품 가격자체와 품질보다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를 보게 되는 등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다국적 기업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로 미국, 유럽, 아시아 기업들의 현지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의 윤리경영에 대해서 연구가 질실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몇몇 연구는 윤리적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용의 액수를 추정했다.(Pelsmacker, Driesen & Ryap(2003)) 이 데이터들은 가상적인 상황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실제 시장에서의 행동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질 수 있다.(Carrigan & Atalla(2001); Tallontire, Rentsendorj & Blowfield(2001)). 계량경제학 연구들은 시장 데이터를 사용했기에 더 신뢰할 수 있지만(Bjorner, Hansen & Russell(2004)), 특정 상점에 대한 한정된 분배, 정보의 비대칭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실험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Anderson & Hanson(2004)에 의하면 Oregon에 있는 에코라벨이 붙은 합판과 안 붙은 합판을 나란히 판매하는 두개의 Home Depot 상점에서 실험을 실행했다. 그들은 라벨이 붙은 상품이 2%의 더 비싼 가격 하에서도 37%가 판매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Kimeldorf, Meyer, Prasad, Robinson(2006)은 2006년 미국 미시간 주의 상점에서 “좋은 작업 환경(good working conditions)” 라벨만이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은 양말을 판매해 보았다. 그 결과는 라벨이 붙은 제품이 40%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25%에 가까이 판매되었다.

본 논문은 서구 언론의 시각에서 지적된 미국,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떠한 비윤리적 경영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관련된 변수를 찾고자 한다. 데이터는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리경영

**Table 0.** The ethical scores of computer/information industry

company	Turnover	Ethiscore	Stories
Toshiba Corp	£38.5 bn	3.5	80
Microsoft Corporation	£42.3 bn	5.5	86
Sony Corp	£58 bn	6	102
Facebook Inc	£12bn	6.5	43
Samsung Group	£136 bn	6.5	111
Google LLC		6.5	75
Apple Inc	£229 bn	7	101
HP Inc	£40.3 bn	7	97
Acer Inc.	£5.9 bn	7.5	48
LG Group	£7.2 bn	7.5	76
Nokia Oyj	£24.7 bn	11.5	35

source: Corporate Critic

관련 잡지 Ethical Consumer가 운영하고 있는 Ethical Research Database에 근거하고 있다. “Corporate Critic”은 3만 개가 넘는 기업들에 대한 윤리적 기록들을 모아 놓은 방대한 자료이다. (www.corporatecritic.org 참조) 본 논문은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에 주목하였다. 본 자료는 비윤리 행위가 언론이나 기관들의 보고서에서 발표된 날짜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해 Corporate Critic의 비윤리적 경영행위 확인절차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미 보도되거나 출판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Ethical Consumer 자체가 윤리문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이미 특정 국가, 특정 회사나 특정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Corporate Critic의 데이터는 실제 발생한 비윤리적 행위의 상대적 빈도를 나타내기 보다는, 오히려 Ethical Consumer라는 단체가 특정 이슈나 회사, 국가에 대해 가졌던 관심의 정도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이 데이터베이스는 환경, 동물권의 NGO들의 보고서,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국방

산업의 정책 보고서, 국제기구의 보고서, 각종 신문, 방송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윤리스코어(ethiscore)라는 점수로 계산되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Corporate Critic은 실제 발생한 비윤리적 행위를 믿을 만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업들의 ethiscore를 살펴보자.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기업들에 대한 윤리적 평판은 해외거대 기업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리 관련 스토리가 많이 수집될수록 스코어가 내려간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기업들이 해외에서 그룹 이미지 관리에 성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북유럽 기업은 CSR에 더 민감하고 일본기업들에 대한 윤리적 인식이 한국기업 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 발견된다.

과거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스위스 식품 관련 다국적 기업 네슬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회사가 2007년 어린이 노동력을 이용한 사례가 국제사면협회의 2007년 5월 보고서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모아 놓은 데이터 베이스를 텍스트 파일로 전부 수집한 후 구체적 스토리가 획득 가능한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개별 건수를 스프레드시트로 옮겨 분석에 이용하였다.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

**Table 1.** The number of ethical violations

국가	지적횡수	인권	노동자권리	정치활동	군사문제
South Africa	1250	55	82	13	12
Niger	571	242	17	2	2
Nigeria	531	198	18	0	2
Kenya	437	185	32	1	0
Egypt, Arab Rep.	375	258	9	0	1
Guinea	341	79	9	1	3
Cameroon	168	61	11	0	1
Angola	167	20	5	8	21
Morocco	153	26	17	0	1
Liberia	120	34	5	5	7
Zimbabwe	115	94	7	1	5
Uganda	112	22	8	0	1
Ghana	100	60	24	4	0
Congo, Rep.	91	67	7	5	4
Algeria	86	77	0	0	2
Chad	84	45	4	0	2
Libya	71	60	0	0	1
Gabon	69	5	1	0	0
Senegal	68	31	3	0	0
Ethiopia	62	32	0	1	2
Sierra Leone	52	11	0	4	7
Malawi	51	8	2	0	0
Congo, Dem. Rep.	46	38	4	3	3

source: Corporate Critic

업의 비윤리적 문제를 확인한 과정에는 다양한 인지의 단계가 들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II. 다국적기업 윤리경영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

### 1. 주재국 일반특성과 윤리경영 위반 빈도

윤리경영의 문제를 놓고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서론에서 지적

했듯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문제인지 또는 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주재국 특성인지 복합적으로 그 요인이 얽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전자의 문제도 다국적 기업이 속한 국가의 전반적 문제이지 특정 산업이 유별나게 윤리경영 위반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차분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이 유난히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윤리경영 이슈가 많다는 것에 착안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이슈를 살펴본다.

경제발전론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는 매

Table 2. Specific violations

country	Supply chain	Fairtrade Product	Anti_Social_Finance	Irresponsible Marketing	Animal Testing	subtotal
South Africa	7	0	37	17	2	63
Guinea	0	0	11	9	16	36
Angola	0	0	27	0	0	27
Niger	0	0	23	2	0	25
Nigeria	0	0	16	2	0	18
Egypt, Arab Rep.	2	0	13	1	2	18
Ghana	2	2	8	6	0	18
Lesotho	0	0	17	0	0	17
Kenya	2	1	7	3	3	16
Sierra Leone	0	0	4	12	0	16
Cameroon	0	0	11	3	0	14
Liberia	0	0	11	2	0	13
Equatorial Guinea	0	0	5	8	0	13
Zimbabwe	0	0	7	5	0	12
Congo, Rep.	0	0	9	0	1	10
Ethiopia	0	0	2	1	7	10

source: Corporate Critic

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은행에 아프리카 전담 연구팀이 있고 경제발전론 논문들 중 아프리카 국가를 사례로 하여 이루어진 논문은 아주 많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론에 대한 일반적 텍스트북은 Bardhan and Udry(1999), Ray(1998)을 들 수 있고, 이 논문의 주재국 특성에 대해서는 경제발전론의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포괄적인 이론적 근거가 되겠다.(Basu and Weil., 1998, Klenow, and Rodriguez-Clare., 1997, Kremer, 1993)

특별히 본 논문의 주재국 특성에 대한 분석에서 쓰인 이론적 모형은 Rodrik, Subramanian and Trebbi(2004)이다. 개발도상국의 제도가 어떻게 경제발전엔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정착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 행정부의 견제와 부정부패와의 관련성, 부패(corruption)가 주는 비효율성을 다루고 있다. 즉, 한 국가의 제도가 자원이나 지리적 요인 보다 더 중요하며 제도가 잘 이루어진 나라는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투명성과 건강 관련 변수는 아래에서 아프리카에서의 윤리 위반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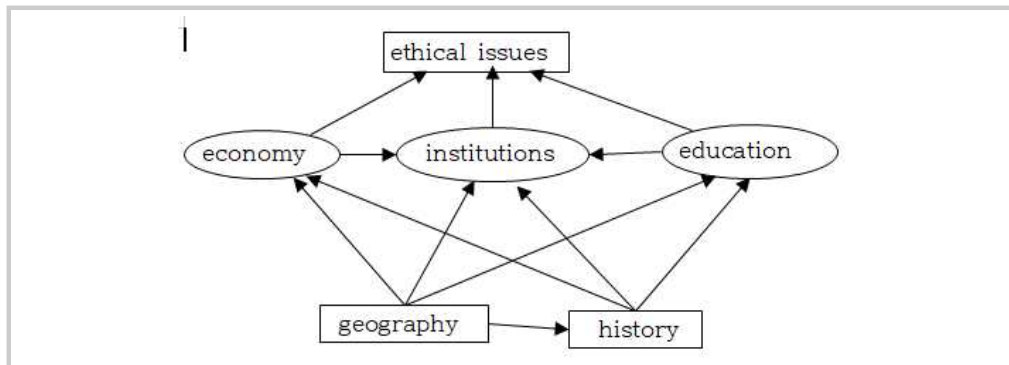
아프리카 관련 논문들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Duflo(2000)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연금이 주어질 때 세대간 소득 이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Duflo and Udry(2001)는 코트 디부아르에서의 가족단위에서의 경제적 결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Garg and Morduch(1998)는 가나에서의 어린이 건강문제를 다룬 바 있고 Kremer(2001)는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문제를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Miguel and Kremer(2001)는 케냐에서 기생충 문제가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에 준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Subramanian and Deaton(1996)은 음식섭취와 칼로리가 건강과 평균수명에 주는 영향을 Udry(1996)는 남녀 성별(gender)이 아프리카에서 농업생산에 주는 영향을 다루었다. 이런 건강 관련 변수들은 경제개발론 논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중요

**Table 3.** The ethical issues on the environment

country	Climate Change	Pollution_ Toxics	Environmental Reporting	subtotal
Niger	43	38	4	85
Nigeria	17	26	2	45
Ghana	16	16	0	32
South Africa	5	19	8	32
Guinea	12	7	1	20
Sierra Leone	12	1	0	13
Kenya	2	6	3	11
Equatorial Guinea	10	0	0	10
Senegal	0	10	0	10
Cameroon	5	4	0	9
Angola	7	1	0	8
Chad	5	3	0	8

source: Corporate Critic

**Fig. 1.** a model



Source: World Bank 자료에 기반한 저자의 재구성

변수들이며 이들 변수들을 토대로 아프리카에서의 윤리경영 이슈를 들여다 보았다.

윤리경영 관련 지적횟수를 조사해보면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큰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250회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산유국은 니제르와 나이지리아는 500건이 넘는 빈도를 보이고 있다. 300회 이상의 위반횟수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케냐, 이집트, 기니아 등이 있다.

구체적인 경영행위에서 발견된 비윤리사례를 조사해보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에

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많고, 공정무역과 관련해서는 가나와 말라위가 각각2건을 보이고 있다. 반사회적 파이낸스는 전반적으로 위반횟수가 많은데, 경제규모가 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37회를 보이고, 앙골라가 27회로 그 뒤를 잇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경제규모가 작은 레소토가 17회나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책임한 마케팅도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관련 비윤리사례의 경우에는 산유국이며 서로 인접한 니제르와 나이지리아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니제르에서

**Table 4.** Number of Ethical Violationsr

〈종속변수: 인구 백만 명 당 전체 위반 횟수〉			
	(1)	(2)	(3)
	위반횟수	위반횟수	위반횟수
gdpcapita_ppp2000	0.0056*** (0.0007)	0.0056*** (0.0006)	0.0054*** (0.0006)
transparency	-7.69** (3.07)	-7.56** (2.95)	-8.01** (2.99)
literacyrate_adult	-0.077 (0.123)		
school_low25		4.17 (4.32)	
oda_current_us			-0.0009 (0.0011)
Constant	24.22** (9.57)	17.14** (8.08)	21.64*** (7.85)
Observations	38	41	40
R-squared	0.71	0.71	0.71

Note: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1, \*\* p<0.05, \*\*\* p<0.01

관측된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43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관측된 나이지리아의 17건에 비해 두배 이상 많았다. 한편 가나의 경우 전체 윤리경영 지적 횟수는 상위 10개국에 들지 않았으나, 환경 관련 문제에서는 32건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빈도를 보였다. Rodrik et al(2004)의 지리, 제도, 경제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변형하여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즉, 아프리카의 지리적 위치가 역사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종합적인 환경이 경제, 교육, 제도에 임팩트를 주었으며 모든 변수는 그 국가의 제도로 수렴되어 최종적으로 그 국가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행위의 윤리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이론적 모형을 구성한다.

윤리경영 위반사례의 빈도가 주재국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적으로 회귀분석을 실행해 본다. 변수들을 경제, 교육, 제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특히 제도 변수에서 건강과 수명 관련 지표는 그 국가의 총체적 제도의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

표이며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작을수록 제도적 완성도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Besley and Kudamatsu(2006) 참조.)

〈경제〉 gdpcapita\_ppp2000: 2000년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 oda\_current\_us: 공적원조 금액 (미화 기준)

〈교육〉 literacyrate\_adult: 성인 문자해독률, school\_low25: 중학교 등록 학생 25% 미만 더미

〈제도〉 transparency: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투명성지수 (1-10), health\_le\_f: 여성의 건강유지 기대수명, dying\_under5\_f99: 1999년 5세 미만 여자 어린이 사망률, dying\_under5\_m99: 1999년 5세 미만 남자 어린이 사망률

위의 표를 보면, 구매력 기준으로 평가한 2000년도 일인당 GDP를 통제변수로 했을 때

**Table 5.** Number of Ethical Violations in Africa

	〈종속변수: 인구 백만 명 당 전체 위반 횟수〉				
	(1)	(2)	(3)	(4)	(5)
COEFFICIENT	위반횟수	위반횟수	위반횟수	위반횟수	위반횟수
gdpcapita_ppp2000	0.0062*** (0.0006)	0.0061*** (0.0006)	0.0061*** (0.0006)	0.0059*** (0.0007)	0.0059*** (0.0007)
Transparency	-6.25** (2.74)	-6.09** (2.80)	-6.32** (2.80)	-5.72* (3.04)	-5.78* (3.11)
dying_under5_f99	0.102*** (0.035)		0.103*** (0.036)	0.136** (0.051)	
dying_under5_m99		0.094** (0.035)			0.122** (0.052)
oda_current_us			-0.0009 (0.0010)	-0.0009 (0.0011)	-0.0008 (0.0011)
health_le_m					0.33 (0.44)
Constant	-0.85 (10.04)	-1.03 (10.54)	0.38 (10.36)	-21.13 (25.35)	-17.92 (27.94)
health_le_f				0.39 (0.40)	
Observations	41	41	40	38	38
R-squared	0.76	0.75	0.77	0.77	0.76

Note: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1, \*\* p<0.05, \*\*\* p<0.01

국가투명성지수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인구 백만명당 전체 위반횟수는 약 7.7회씩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이다. 그러나 성인 문맹률(문자해독률), 교육지표(중학교 등록 학생 25%미만 더미), 공적원조 금액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다. 이를 해석하면 다른 변수들 보다 그 국가의 제도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Table 2〉또한 구매력 기준으로 평가한 2000년도 일인당 GDP를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5세 미만 여자 어린이의 사망률이 증가하면 인구 백만 명 당 위반횟수가 0.1회 증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이다. 하지만 공적원조 금액을 추가하여 분석해보면 설명력이 감소하는데, 이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이다. 5세 미만 남자 어린이 사망률의 증가로 인해 위반횟수는

백만 명 당 약 0.1회 증가하는데, 이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이다. 공적원조 금액과 여성의 건강유지 기대수명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문맹율(문자해독율)이나 교육지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5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률이 유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결과는 중국 쓰촨성 지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사회의 구성원이 부패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것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의 더 큰 희생, 즉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국가의 투명성”이나 건강변수로 표출되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 다국적기업의 비윤리적 문제가 지적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Rodrik(2004)은 제도가 그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강조하면서 제도가 경제성장에 주는 효과를 전세계 국가의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여 분석(cross country empirical analysis)한 바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저성장을 제도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에서 설명하고 있는 데, 제도의 문제는 기업의 경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배경을 만들게 된다. 이런 문제는 아프리카 국가의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에서 더욱 증폭된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만 후진국에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선진국 기업의 경영자가 후진국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을 경우 그 처벌이 경감되는 사례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불투명성은 아프리카에서 경제성장의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주재국 특성으로 비윤리적인 결과를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국적 기업이 속한 나라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적 특성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 상세히 알아본다.

## 2. 산업적 특성과 다국적기업의 윤리경영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윤리이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이슈였던 인권과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이들 윤리이슈가 산업별로 다르게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Hickson, et al. (1974)이나 Miller (1987) 같은 학자들은 다국적기업의 영업활동이란, 특히 세계화에 따른 경영환경이 유사해 지는 상황에서는, 서로 크게 다를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에 반해 Donaldson and Dunfee (1994)는 윤리적 이슈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그들의 '통합사회계약이론(integrative social contract theory)'을 제안하면서 윤리적 이슈는 거시적인 사회계약(macro-social contract)과 미시적 사회계약(micro-social contract)의 두 가지 차원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시적 사회계약이란 모든 합리적 관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로 도덕이론과 같은 추상적 수준의 이론이 이에 해당하며, 미시적 사회계약은 국지화된 공동체 내의 관계자들 사이에 받아들여지는 실질적 사회계약이라고 했다. 윤리적 이슈는 이들 두 암묵적 사회계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데, Schlegelmilch and Robertson (1995)는 산업이나 문화와 같은 구체적인 사회맥락은 미시적 사회계약을 통해 윤리적 이슈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Gordon (1991)은 산업 특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조직문화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는 같은 산업 내의 조직은 경쟁환경(competitive environment), 고객요구조건(customer requirements), 사회기대(societal expectations)의 세 측면에서 유사한 경영환경을 함께 나누게 되며, 이들 공유된 환경 속에서 함께 생존을 추구하는 조직문화의 유사성을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 이를 다시 Kostova and Zaheer (1999)의 정당성 요소와 결합하면 산업 특성은 조직문화의 유사성을 통해 본사의 지향점과 같은 조직 특성의 유사성으로 전달되면서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끼리는 비슷한 정당성의 문제나 정도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게 된다.

산업별 특성과 윤리인식에 관한 실제 경험분석으로는 Chatov (1980), Beneish and Chatov (1993), Schlegelmilch and Robertson (1995) 등을 들 수 있다. Chatov (1980), Beneish and Chatov (1993)는 주요 기업의 윤리규범의 내용 분석을 통해 산업에 따라서 윤리규범의 내용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밝혔다. Schlegelmilch and Robertson (1995)는 미국과 유럽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윤리이슈 인식이 산업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이들의 연구 결과는 인사문제와 같은 기업의 공통요인에 대해서는 산업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Hickson, et al. (1974)이나 Miller (1987)가 주장한 산업 무관설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소매업이 직원의 행동을 강조하는 반면, 농업과 제조업은 대정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산업간 윤리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도 해 윤리인식에 있어 산업유관설의 입장도 함께 뒷받침했다.

**Table 6.** Country origin of firms

country_host	Africa	America	Asia	EU	Total
Algeria	0	13	9	36	58
Angola	4	23	4	41	72
Benin	0	4	0	7	11
Botswana	7	2	1	5	15
Burkina Faso	0	0	0	3	3
Burundi	0	4	4	10	18
Cameroon	0	34	2	45	81
Central African Repub	0	1	1	4	6
Chad	0	28	2	29	59
Congo, Dem Rep of	0	7	1	16	24
Congo, Rep of	2	8	1	24	35
Cote Ivoire	0	1	0	2	3
Egypt	0	90	17	105	212
Equatorial Guinea	0	8	1	4	13
Eritrea	0	2	3	8	13
Ethiopia	0	5	8	23	36
Gabon	0	6	3	26	35
Gambia	0	0	0	1	1
Ghana	6	40	0	39	85
Guinea	0	34	48	51	133
Kenya	0	101	24	152	277
Lesotho	0	4	0	3	7
Liberia	0	16	22	35	73
Libya	0	11	5	19	35
Madagascar	0	0	0	19	19
Malawi	1	6	2	15	24
Mali	0	4	0	7	11
Morocco	0	17	10	51	78
Mozambique	2	0	0	2	4
Namibia	3	3	0	21	27
Niger	0	122	24	245	391
Nigeria	0	97	25	198	320
Rwanda	2	2	2	10	16
Senegal	0	6	4	23	33
Seychelles	0	2	1	4	7
Sierra Leone	0	1	0	13	14
Somalia	0	5	2	4	11
South Africa	26	153	32	233	444
Tanzania	1	0	1	6	8
Uganda	0	17	0	48	65
Zambia	0	6	2	8	16
Zimbabwe	2	22	4	44	72
togo	0	4	2	12	18
Total	56	909	267	1,651	2,883

source: Corporate Critic

Table 7. industry level violations

industry	Africa	America	Asia	EU	Total
air	0	0	1	26	27
auto	0	44	56	48	148
chemical	0	15	0	40	55
computer	0	28	12	0	40
cosmetics	0	0	0	33	33
electronics	0	0	35	34	69
financial	0	72	13	148	233
food	0	132	4	388	524
manufacturing	9	174	108	261	552
mining	47	22	25	82	176
oil	0	281	9	365	655
pharm	0	131	0	174	305
telecom	0	10	4	49	63
utility	0	0	0	3	3
Total	56	909	267	1,651	2,883

source: Corporate Critic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윤리 경영에 관한 이슈는 직접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문제, 혹은 해당 피해국가의 내부에 존재하는 부패 등과 같은 문제로 보는 시각을 제거 하더라도 산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윤리적 이슈가 많이 제기될 수가 있을 것이다. 석유 사업 같은 경우 환경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별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는지 개괄해 보고 또한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윤리적 이슈와 관련된 다국적 기업들이 소속된 국가나 지역에 대한 현황을 소개한다. <Table 6>를 보면, 윤리경영 위반 사례로 신고된 전체 2883건 중 유럽기업의 경우가 1651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케냐, 니제르,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윤리경영 위반 사례가 유럽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기업의 위반사례도 총 56건이나 적발된 것이 흥미롭다.

<Table 7>에서는 산업별로 윤리경영위반사례가 적발된 경우를 모기업의 대륙별 국적으로 분류했다. 유럽의 경우 위반사례가 식품, 석유 시추업,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체 1651건 중 식품관련 388건, 석유시추업 365건, 제조업관련 261건이다. 미국기업의 경우 석유시추

업, 제조업, 제약업종과 식품에 집중되어있고, 아시아의 경우 제조업, 자동차 산업, 전기업종에서 위반사례가 집중되어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전체 56건 중 47건이 광산업에서 적발된 것과 제조업과 광산업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흥미롭다.

적발된 기업의 국적 분포는 미국의 경우 894건, 영국의 경우 713건으로 전체 2883건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뒤를 네덜란드(294건), 스위스(235건), 독일(206건)이 따르고 있었다. 한편 가장 큰 피해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444건의 윤리경영 위반사례가 조사되었고, 그 뒤를 니제르(391건), 나이지리아(320건)가 따르고 있었다.

적발된 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석유 시추 및 정제업종이 655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552건), 식품업(524건)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한편 네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제약업(305건)이다. 유럽과 미국이 윤리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또 산업별로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행하였다.

인권과 환경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기업의

**Table 8. Regional comparisons**

	인권위반사례비율		인권위반사례비율	
	미국	유럽	아시아	유럽
관측치수	909	1651	267	1651
평균	42.57%	38.82%	45.31%	38.82%
표준오차	1.64%	1.20%	3.05%	1.2%
t값	1.85		2.01	
p값	0.03**		0.02**	

Notes: 1. author's calculation, source: Corporate Critic  
 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1, \*\* p<0.05, \*\*\* p<0.01

**Table 9. Industry level comparisons**

	제조업회사		석유회사		제약회사	
	미국	유럽	미국	유럽	미국	유럽
관측치수	174	261	281	365	131	174
평균(%)	41.95	50.96	43.77	37.81	19.84	26.44
표준오차(%)	3.75	3.1	2.96	2.54	3.5	3.35
t값	1.85		1.53		1.34	
p값	0.03**		0.06*		0.09*	

Notes: 1. author's calculation, source: Corporate Critic  
 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1, \*\* p<0.05, \*\*\* p<0.01

차이를 비교해 본다. <Table 7>에는 미국과 유럽의 인권위반사례를 비교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미국은 윤리경영위반사례 총 909건 중 인권위반사례가 42.57% 유럽은 총 1651건 중 38.82%이다. 미국의 경우 인권위반사례가 유럽보다 3.75%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단측검정시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윤리적 경영을 하는 미국회사 중 인권위반사례를 저지른 회사의 비중은 유럽의 경우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와 유럽의 인권위반사례를 비교해보면 아시아의 경우는 위반을 하는 비율이 전체의 45.31%로 유럽의 38.82%보다 약 6.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비윤리적 경영을 하는 아시아회사 중 인권위반사례를 저지른 회사의 비중은 유럽의 경우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

과는 유럽의 윤리적 의식이 미국 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소비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전반의 윤리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더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9>에서 미국과 유럽 제조업회사의 인권위반사례를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총 위반사례 중 약 42%가 인권위반사례이고, 유럽은 약 51% 이다. 이는 단측검정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윤리적 경영을 하는 미국 제조회사 중 인권위반사례를 저지른 회사의 비중은 유럽의 경우보다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석유회사들의 인권위반사례를 비교해보면 전체 적발사례 중 미국의 석유회사들은 약 44%, 유럽은 약 38%가 인권위반 사례로 조사되었다. 단측검정시 이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윤리적 경영을 하는 미국 석유회사 중 인권위반사례를 저지른

Table 10. comparisons between USA and Europe

	전체업종		제조업회사		석유회사	
	미국	유럽	미국	유럽	미국	유럽
관측치수	909	1651	174	261	281	365
평균(%)	11.22	8.23	6.32	2.68	19.57	21.1
표준오차(%)	1.05	0.68	1.85	1	2.37	2.14
t값	2.49		1.87		-0.48	
p값	0.006***		0.03**		0.31	

Notes: 1. author's calculation, source: Corporate Critic

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 , \*\*  $p < 0.05$ , \*\*\*  $p < 0.01$

회사의 비중은 유럽의 경우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제약회사들의 인권위반사례를 비교해보면 전체 적발사례 중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약 20%, 유럽은 약 26%가 인권위반사례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윤리적 경영을 하는 미국 제약회사 중 인권위반사례를 저지른 회사의 비중은 유럽의 경우보다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식품, 석유 관련 기업의 경우 미국의 기업이 유럽의 기업보다 인권위반으로 고발된 비중이 높고, 제조업, 제약관련 회사는 미국의 기업이 유럽의 기업보다 인권위반으로 고발된 비중이 낮다.

미국과 유럽의 환경오염사례(〈Table 10〉)를 비교해보면 전체 사례에서 미국은 11.2%가 환경사례로 조사되었고, 유럽의 경우는 8.2%로 조사되었다. 미국이 약3%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단측검정시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윤리적 경영을 하는 미국회사 중 환경오염을 유발한 회사의 비중은 유럽의 경우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비윤리적 경영으로 적발된 제조업회사 중 환경오염 문제로 적발된 회사의 비중을 보면 미국은 6.32%, 유럽은 2.68%이다. 미국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회사의 비율이 유럽 보다 3.64% 높은지 분석해본 결과, 단측검정시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유럽의 석유회사들의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환경오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약 19.6%, 유럽은 약 21%이다. 유럽의 경우가 근소하게 높지만 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은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는 특정 산업에 속해 있다는 것이 윤리경영 위반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통제 변수로 지역 변수를 도입하고 산업의 영향을 알아 보았다. 로지시틱(logistic) 분석은 종속변수가 연속변수가 아닌 1 또는 0 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유용하게 쓰이는 방식이다. 특히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요인별 중요성을 알 수 있어 널리 쓰이고 있다.

세 가지 모형을 설정하여 로지시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모델에서는 각각의 위반사례가 인권위반사례이면 1, 아닌 경우는 0 으로 설정하였다. 미국과 아시아지역 더미변수와 모든 산업변수를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 자동차, 화학, 금융, 통신업종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두 번째 모델은 반환경적 위반사례들, 즉 오염물질 방류(pollution toxic), CO2 배출과 같은 기후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climate change),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행위(habitats resources), 그 외에 환경문제로 지적을 당한 경우(environmental reporting)의 범주에 들어

**Table 11.** logistic regressions

	(1)	(2)	(3)
COEFFICIENT	model 1	model 2	model 3
	인권위반	환경위반	환경위반
미국	0.141 (0.091)	0.263* (0.145)	0.258* (0.145)
아시아	-0.220 (0.150)	0.112 (0.285)	0.190 (0.288)
자동차	1.255*** (0.447)		
화학	-2.208*** (0.721)		1.434** (0.633)
컴퓨터	1.060** (0.528)		
화장품	0.746 (0.537)	1.370** (0.563)	
전기 전자	0.651 (0.480)		
금융	1.440*** (0.433)	1.267*** (0.333)	1.781*** (0.495)
식품	-0.469 (0.421)	-1.283*** (0.472)	-0.766 (0.598)
제조	0.487 (0.419)	0.014 (0.338)	0.517 (0.496)
광업	0.162 (0.438)	1.575*** (0.336)	2.081*** (0.495)
석유	0.222 (0.418)	1.596*** (0.297)	2.114*** (0.472)
제약	-0.551 (0.432)	-0.314 (0.416)	0.205 (0.556)
통신	2.232*** (0.527)		1.625*** (0.595)
Constant	-0.685* (0.408)	-3.093*** (0.285)	-3.609*** (0.464)
Observations	2880	2774	2735
LR Chi2	306.67	196.43	198.33

Note: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1, \*\* p<0.05, \*\*\* p<0.01

가는지의 여부를 더미변수화하여 종속변수로 삼고, 미국, 아시아 지역더미와 화장품, 금융, 제조, 광업, 석유, 제약업종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미국 지역더미변수는 10% 유의수준에서, 화장품은 5% 유의수준에서, 금융, 식품, 제조, 광업, 석유업종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식품업종의 경우 위반할 확률이 감소하는 점이다. 이는 식품업종이 다른 업종보다 반 환경적 위반사례로 적발된 비율이 더 낮은 것을 의미한다. 광업과 석유업종은 위반이 증가할 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이는 산업의 특성상 환경 파괴적 행위를 할 유인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모델에서는 두 번째 모델에서 화장품산업을 제하고 화학, 통신업종을 추가하였는데 화학과 통신업은 각각 5%, 1% 유의수준에서 환경 관련 비윤리적 행위의 유의미한 증가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역시 석유산업과 광업의 경우 위반 사건이 증가할 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로지스틱 분석을 바탕으로 비윤리적 경영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 중 인권위반사례인 경우의 비율이 변화를 보이는지 한계효과를 계산한 결과, 같은 조건하에서 미국기업인 경우, 아시아기업인 경우를 분석해본 결과, 유의하지 않은 차이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3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화학업종에서는 33% 감소, 컴퓨터산업은 25.9% 증가, 금융업은 34% 증가, 통신업은 46%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이들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 다른 항목에서 보이는 차이는 분석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비윤리적 경영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 중 환경오염사례의 비중 변화의 한계효과를 계산한 결과, 같은 조건하에서 미국일 경우 전체적발 횟수 중 환경오염관련 위반사례의 비율이 1.6% 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기업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업의 경우 20% 확률이 증가하고 이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이다. 광

업은 26%, 석유산업은 21.6% 더 높은 확률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통신은 18.9% 확률이 높아지지만 10% 수준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 통한 산업적 특성이 윤리적 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업적 특성이 윤리적 위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해당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해외의 이머징 마켓에 진출할 때 더욱 조심을 할 필요가 있으며 서구 언론을 통해 기업의 비윤리성이 부각될 때 미국이나 유럽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기업 경영이 글로벌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한 국가에서의 윤리적 문제는 다른 국가에서의 매출 부진이라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 III. 결론

윤리경영의 이슈들을 구체적인 지역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것은 경제사적인 이유에서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낙후된 지역으로써 윤리적인 이슈가 자주 제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진국 기업과 개도국 정부 사이의 문제,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과 아프리카 정부 사이의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후생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별로 제기되는 윤리이슈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여기에서 확인한 결과는 무엇이 이런 산업별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본 논문의 문헌연구에서 일부 제기되었지만, 동일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암묵적 사회계약의 결과일 수도 있으며 (예: Donaldson and Dunfee, 1994), 같은 산업에서 활동하는 경쟁기업이 받은 유사한 윤리적 정당성 도전 때문일 수도 있고 (예: Kostova and Zaheer, 1999), 경영자 인식의 차이 (예: Schlegelmilch and Robertson, 1995)나 조직문화의 차이 (예:

Gordon, 1991)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산업별 차이를 설명하려는 이들 가설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동시에 결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으리라 본다. 산업특성이 윤리 이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이 연구에 더해 산업특성이 윤리이슈에 주는 영향의 전달 경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추가하고 싶은 연구의 하나로 아프리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진출 기간에 따라 윤리위

반이 상이하게 나오는 점을 감안한 요인연구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지역에서의 다국적기업과의 중복을 확인하는 등의 현실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은 아프리카에서의 윤리경영 이슈에 대한 하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보다 다양한 자료의 발굴과 구축, 빅데이터를 통한 텍스트 분석기법을 통해 폭넓은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Anderson, R.C. and Hanson (2004), "Determining consumer preferences for ecolabeled forest products: an experimental approach," *Journal of Forestry* 102(4), pp. 28-32.
- Bardhan, P. and C. Udry, (1999), *Development Microeconom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su, S. and D.N. Weil (1998), "Appropriate Technology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4), pp. 1025-54.
- Beneish, M.D. and R. Chatov (1993), "Corporate codes of conduct: economic determinants and legal implications for independent auditor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2(1), pp. 3-35.
- Besley, T. and M. Kudamatsu, (2006), "Health and democracy", *American Economic Review* 96(2). pp. 313-318.
- Bjørner, T.B., L.G. Hansen and C.S. Russell (2004), "Environmental labeling and consumers' choice—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Nordic Swan,"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47(3), pp. 411-434.
- Carrigan, M. and A. Attalla (2001), "The myth of the ethical consumer - do ethics matter in purchase behaviour?",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8(7), pp. 560-577.
- Chatov, R. (1980), "What corporate ethics statements sa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2(4), pp. 20-29.
- \_\_\_\_\_ (1982), "Corporate conduct codes: operational or symbolic?" Paper presented to the Academy of Management, New York.
- Donaldson, T. and T.W. Dunfee (1994), "Towards a unified conception of business ethics: integrative social contract theor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2), pp. 252-284.
- Duflo, E. (2000), "Grandmothers and Granddaughters: Old Age Pension and Intra-household Allocation in South Afric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Dept. of Economics Working paper, WP 00-05, Cambridge, MA. : MIT
- Duflo, E. and C. Udry (2001), "Intrahousehold Resource Allocation in Côte d'Ivoire: Social Norms, Separate Accounts and Consumption Choices", Bureau for Research in Economic Analysis of Development (BREAD) Working Paper, Cambridge, MA.



- Garg, A. and J. Morduch (1998), "Sibling Rivalry and the Gender Gap: Evidence from Child Health Outcomes in Ghana."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1(4), pp. 471-493.
- Gordon, G.G. (1991), "Industry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cult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2), pp. 396-415.
- Hickson, D., C. Hinings, C. McMillan and J. Schwitter (1974), "The culture-free context of organization structure: a tri-national comparison," *Sociology* 8(1), pp. 58-80.
- Kimeldorf, H., R. Meyer, M. Prasad, I. Robinson (2006), "Consumers with a conscience: will they pay more?," *Contexts* 5(1), pp. 24-29.
- Klenow, P., and A. Rodriguez-Clare (1997), "The Neoclassical Revival in Growth Economics: Has it Gone too Far?" In NBER Macroeconomics Annual. Cambridge, Mass.: MIT Press, pp. 73-114.
- Kremer, M. (1993), "The O-Ring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8(3), pp. 551-575.
- \_\_\_\_\_ (2001), "Creating Markets for New Vaccines: Part I: Rationale." In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Vol. 1. Cambridge, Mass.: MIT Press
- Lee, Ji-Hye and Hee-Sub Byun (2016), "Do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Reduce the Risk of Firms?: Evidence from Korea", *Korean Management Review* 45(5), pp. 1551-1586.
- Miguel, E. and M. Kremer (2001), "Worms: Education and Health Externalities in Kenya." NBER Working Paper No. w8481, Cambridge, MA.
- Miller, G.A. (1987), "Meta-analysis and the culture-free hypothesis," *Organization Studies* 8(4), pp. 309-325.
- Pelsmacker, D. and Rayp (2003), "Are fair trade labels good business? Ethics and coffee buying intentions," Working Papers of Faculty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03/165., Ghent University, Belgium,
- Ray, D. (1998), *Development Econom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drik, D., A. Subramanian and F. Trebbi (2004) "Institutions Rule: The Primacy of Institutions over Geography and Integr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9(2), pp. 131-165
- Schlegelmilch, B. and D. Robertson (1995), "The influence of country and industry on ethical perceptions of senior executives in the U.S. and Europ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6(4), pp. 859-881.
- Subramanian, S. and A. Deaton (1996), "The Demand for Food and Calo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4(1), pp. 133-62.
- Tallontire, A, E. Rentsendorj and M. Blowfield (2001), "Literature survey on ethical consumerism," Policy Series No. 12, Natural Resources Institute, Chatham, UK.
- Udry, C. (1996), "Gender,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he Theory of the Househol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4(5), pp. 1010-1045.